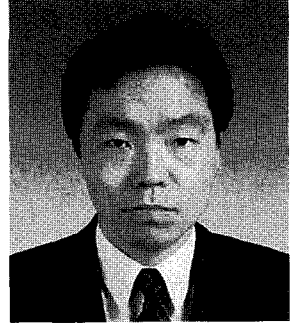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방안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조 봉 환



1. 머리말

농산물 유통하면 그려지는 모습이 있다. 산물로 출하되어 쓰레기로 지저분한 가락동 시장, 배추, 한포기에 도시에서 1,000~2,000원 할때 산지에서는 200~300원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에 허탈해 하는 농민모습...

도매시장의 낙후된 유통여건,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커다란 가격차,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가격문제는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결과만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통에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있는 것이다.

가격차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농산물유통에 관한 한 비슷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도 배추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10% 수준이 순수 농민 몫이다. 앞서 지적한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간설명이 생략된 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유통구조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개선해 나갈수 있다. 여기서는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에 해당하는 물류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쌀, 축산물은 제외하고 과일·채소류를 대상으로 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농산물 물류의 현황

물류문제는 결국 상품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유통 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락동 시장에서 청과류는 연간 220만톤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먼저 포장여부를 보면, 과일류는 대체로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다.

'96. 9월 기준 사과 93.4%, 배 97.9%, 포도 72.6% 등이다. 채소류의 경우도 감자, 상추, 참외 등은 포장율이 90% 이상이다.

문제는 배추, 무 등이다. 배추 1.3%, 수박 5.9%, 무 21.2%이다.

물량기준으로 보면 배추, 무, 수박이 연간 70만톤 수준으로 전체출하량의 1/3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포장되지 않고 산물로 출하되는 채소류를 집중 포장하는 것이 물류효율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포장된 농산물이 어떻게 담겨지는냐하는 문제이다.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산품과 같이 균일화될 필요가 있다.

한 파렛트 위에 동일출하자, 동일갯수, 동일등급의 농산물이 실려야 효율화 할 수 있

다. 그래야 기계화도 가능하다.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를 위해 출하자별로, 등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농산물이 파렛트에 실려오더라도 출하자가 다르고, 등급이 다르면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아직 산지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농민의 경작 규모는 영세하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조직 영농활동도 미흡하다. 공동출하해도 동일지역 농민이 같은 차량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다. 돈을 쏟아 붓고 제도를 고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물류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3. '97농산물의 물류효율화 정책

정부에서는 국가전체의 물류효율화와 물류비용 절감 정책에 맞추어 농산물 물류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배추·수박의 포장화이다. 포장함으로써 소비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상당량을 산지에 돌려주게 된다. 여름철 트럭에 산물로 싣고 와서 생기는 감모·상품성저하를 줄일수 있다. 수박은 손으로 취급할 때 생기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거래단위도 5톤 트럭에서 상자로 바꿈에 따라 그만큼 투명해진다.

이를 위해 골판지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포장자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600원/매 기준 국고 200원, 지방비 150원).

'97년에는 국고예산 63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초기 포장화 촉진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97년에는 가락동, 구리, 안양(구리, 안

양은 '97 상반기중 개장예정)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게 된다. 차츰 포장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선별도 잘하게 되어 가격도 차별받을 수 있고, 포장자재비도 정상적인 유통비용에 포함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포장화는 사회적 효용증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출하자 입장에서도 추진할 이유가 있다. '97년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배추의 경우 톤당 5,000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97. 4월 예정된 가락동시장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행보다 5톤기준 10만원 정도 추가예상)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하역기계화이다. 현재 도매시장하역은 수작업이다. 일부 롤러 전동차 이용도 있으나 미미하다. 수작업 하역에 따라 시간이 많이 들고 물량이 집중출하되는 때에는 몇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가락시장의 경우 가뜩이나 적정 물량이상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작업 하역으로 더욱 비효율을 더해 주고 있다.

하역기계화를 위해 '97년에는 70억원을 지원한다. 역시 가락동, 구리,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하역장비를 지원한다.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 구입비의 80%를 융자해 준다.

하역기계화는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와 포장화를 추진하는 배추·수박등을 대상으로 파렛트에 실어나르고 지게차로 하역하는 체계이다.

물론 산지에서부터 파렛트·지게차 작업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일관수송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와 영농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산지에서부터의 파렛트 일관수송은 10%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내 하역효율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에서 파렛트 없이 출하될 경우 시장내에 지게차와 파렛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인력도 어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00% 효율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곳곳에서 하역하고 지게차로 경매장까지 이동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경매장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만 진행되더라도 많이 효율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

단기적 방식은 대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 장기적 방식은 미국, 구중국의 형태이다. 각기 영농형태별로 거기에 맞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포장화와 하역기계화를 위해 작년 8월이후 가락동시장에서 시범출하를 실시하는 등의 준비를 해 왔다. 우선 파렛트규격 (T-11)에 맞추어 20개 주요품목에 대해 포장재 규격을 정비하였고, 포장자재의 다양화, 차량폭문제 등 시범출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하였다.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현재 농산물은 5톤 트럭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5톤트럭은 2열적재를 위해서는 적재함 폭을 최소 100mm이상 확대하여야 한다. 지난 4/4분기이후 건설교통부와 협조하여 농산물 수송에 활용되는 5톤트럭의 개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개조실적은 미미하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 올해 지원하는 파렛트는 표준파렛트 이외에 현행 5톤트럭 사용이 가능한 1,050mm 파렛트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농산물로 하루 출하량이 조금 모자라도 값이 폭등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표준파렛트를 적극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T-11형 표준파렛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량개조도 병행 추진하고 신규 차량 구입시 광폭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4. 장기적 정책과제

농산물 물류효율화의 궁극적인 추진방향은 산지에서부터의 파렛트 일관수송체계의 구축이다. 이에 산지에서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소비자시장에서도 노조문제, 하역비 조정 등 쉽지 않은 일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유통도 하역기계화를 통하여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산지에서의 변화, 즉 생산자가 출하물량을 규모화하고, 동일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포장하여 출하하는 일은 결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개별 농가단위의 영농, 출하보다는 조직화하거나 협동하여야 한다. 이는 인식변화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농산물 유통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97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조직화 및 하역기계화가 조기 정착되어 우리 농산물 유통은 물론 우리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분명 어려운 작업이다. 생산자, 산지유통업자, 수집상, 파렛트, 포장재 제작업자, 시장관계자,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